

KMI 동향분석

VOL.32
2017 JUNE

발간년월 2017년 6월(통권 제32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향분석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정명화 국제수산업연구실 실장
(jmh@kmi.re.kr/051-797-4571)
이지은 국제수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
(leeje@kmi.re.kr/051-797-4554)
이동림 국제수산업연구실 연구원
(donglimlee@kmi.re.kr/051-797-4544)
김세인 국제수산업연구실 연구원
(sein87@kmi.re.kr/051-797-4575)
오서연 국제수산업연구실 연구원
(seoyeon_oh@kmi.re.kr/051-797-4557)

올해는 1957년 다랑어 어선인 지남호가 인도양에서 시험조업을 시작한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과거 원양어업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 정책에 힘입어 1970~90년대 최고의 부흥기를 누렸다. 최대 100만 톤을 생산해 우리나라 어업 생산량의 26%를 차지하며 주요 수산식량 공급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세계 5대양을 개척한 원양어업은 당시 국민경제에 기여한 바가 매우 컸다. 1970년대 초 원양수산물인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5%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 효자품목이었는데 이는 오늘날 수출 주요품목인 휴대폰(6%), 자동차 부품(5%)과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1976년 원양어업이 벌어들인 외화가득액은 2억 6천만 달러로 당시 13만 가구의 총소득액과 맞먹는 수준이었으며 어선원이 2만명을 상회할 정도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업종이었다.

그러나 60주년을 맞이하는 원양어업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해외 어장 축소와 수산자원의 감소에 따라 원양어업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2년 100만 톤에서 2016년 45만 톤으로 줄어들었고, 전체 어업 생산량에서 원양어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해 32%에서 2016년 14%로 감소하였다. 이 결과 경영난 악화에 따른 도산으로 2002년 131개이던 원양업체 수는 2015년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선원 이직률 증가와 재승선 기피 현상 심화로 내국인 어선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고, 그 자리를 외국인 선원이 대신하고 있다. 또한 전체 원양어선의 88%는 선령 20년이 넘는 노후어선으로 조업 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주요

어장의 연안국들은 입어로 인상과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등 어장확보도 어려워지고 있으며, 자원관리 수단 강화 등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원양어업 성장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어선건조 및 유류 보조 지원 등을 통해 원양어선단을 육성하고 있고, 일본은 최근 수립한 수산기본계획을 통해 원양어선의 고성능화와 해기사의 적극 양성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제 우리 원양산업도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과거 전성기를 이끌었던 정부의 정책만큼이나 과감하면서도 세밀한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노후 원양어선의 신조 대체 지원 등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의 활성화와 원양어선의 노동 환경 개선을 통해 원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태평양과 남미 수역의 연안 자원국에 대한 ODA 사업과 수산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어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원양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중소 원양기업의 규모화를 위한 어선 풀링(pooling) 결성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원양어업, 60년간 수산물 수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선봉

■ 1960년대 정부 정책, 원양어업의 성장 촉진제 역할

-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수산물 수출 종합진흥정책」, 「수산자원 개발계획」 및 「수산분야-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수산업 지원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우리나라 원양어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하였음
- 특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영세한 어업구조를 개선하고 어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강력한 수산정책들이 수립·시행되면서 우리나라 원양어업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음

표 1. 1960년대 수산업 지원정책

구 분	주요 내용
수산물 수출 종합진흥정책	- 579억원을 투자하여 수산자원 개발 - 어선 장비와 어획 기술 개량 - 2,500여 척의 소형 어선 생산, 7척의 원양어선 도입 - 가공시설 시설 및 수산물 수출확대
수산자원 개발계획	- 수출전략 품목 선정 및 어선 건조 - 집하 및 수출체계 일원화, 수출센터 설치 - 수출금융조건 완화 - 수산물 수출 진흥 위한 행정체제 강화
수산분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해외 어장 개척 - 노후 어선 개·보수, 어선 신조 - 가공 수산물 해외 수출

자료 1.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next/viewMain.do>)(2017.4.6.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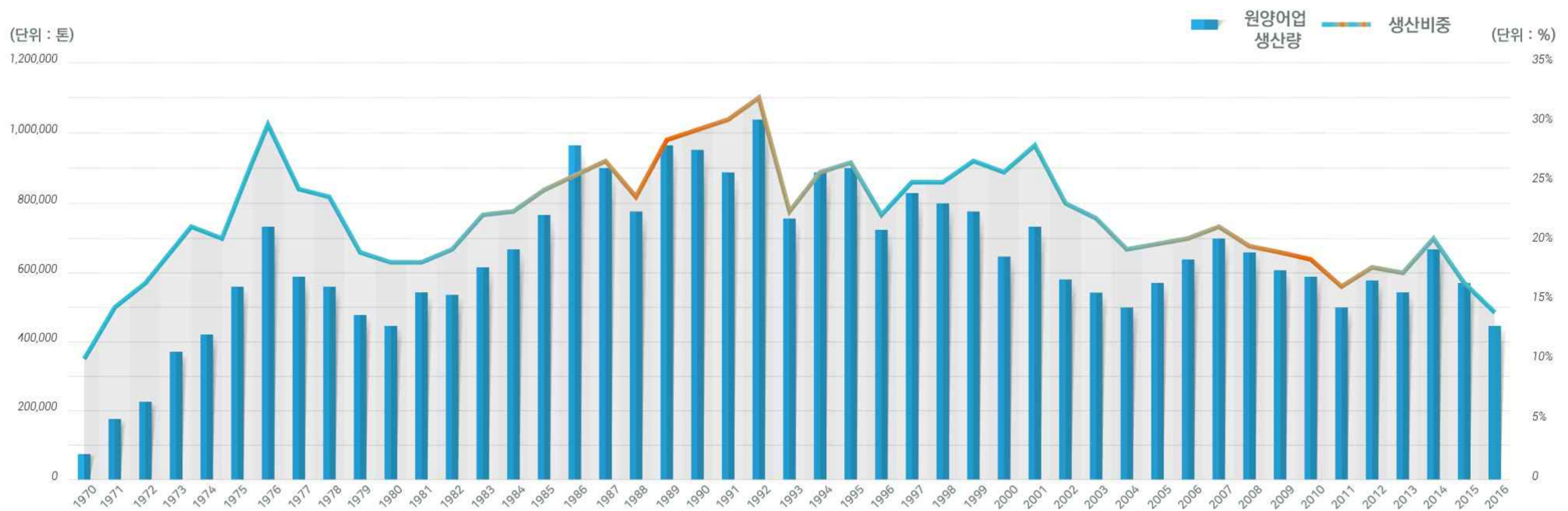
자료 2. e-영상 역사관(<http://www.ehistory.go.kr/>)(2017.4.6.검색)

자료 3. 원양어업 50년 발전사 p.480, 농림수산식품부, 2008

■ 어업 총생산량의 최대 26% 생산, 대국민 수산물 단백질 공급의 일등 공로

- 1980년부터 원양어업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여 1992년 최대 100만 톤을 생산하였으며,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26.2%를 차지함
- 주요 생산 어종은 다랑어(99.3%), 명태(99.9%), 꽁치(95%)이며, 이들 어종의 원양어업 생산 비중이 95% 이상임. 즉, 우리나라 대중 어종 생산·공급의 주축 역할을 하며 단백질원 공급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음

그림 1. 우리나라 원양어업 생산량 추이와 생산비중(1970~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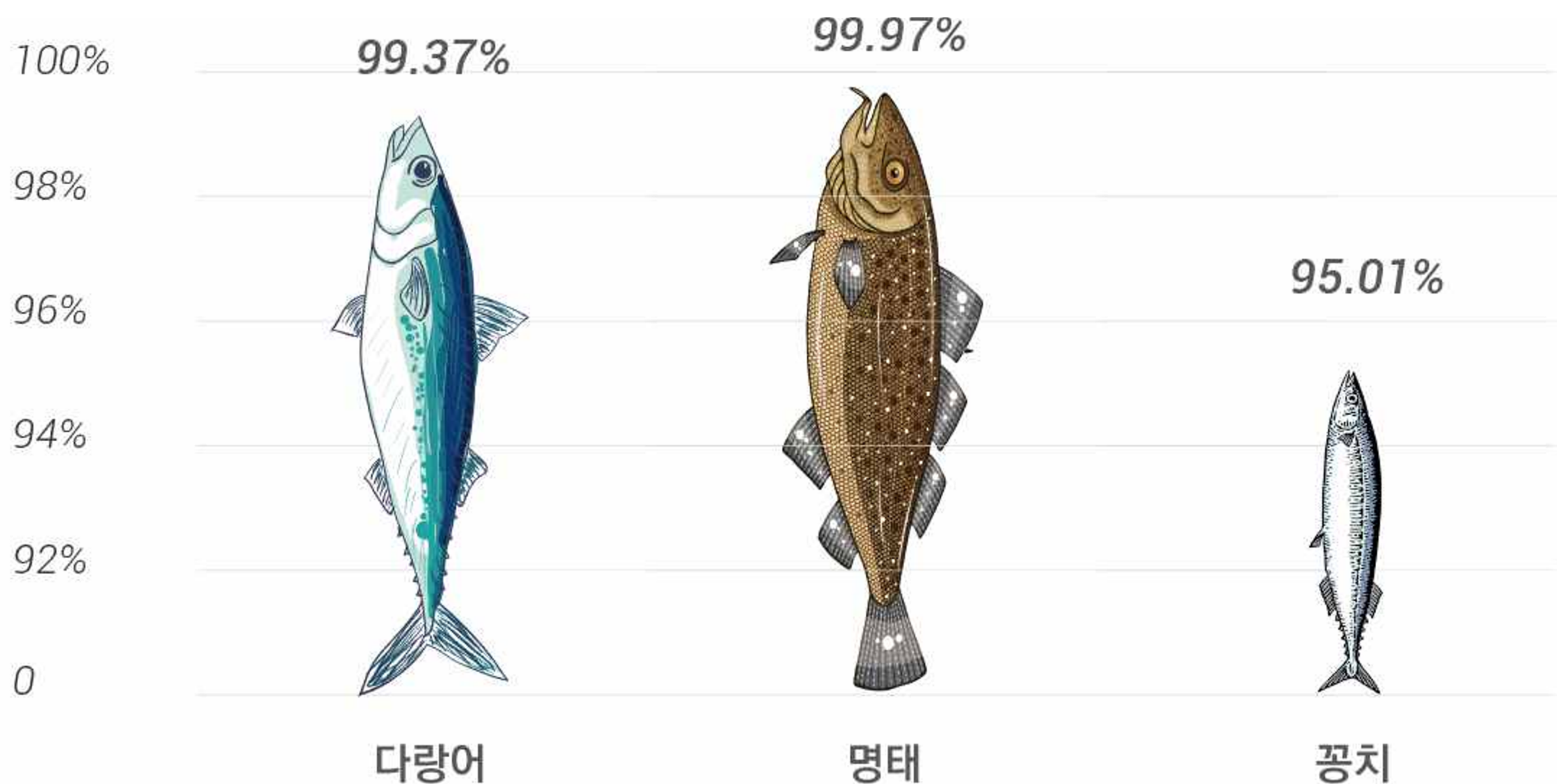


자료 1. 수산통계연보(1979), 수산통계연보(1983), 농수산부

자료 2. 2016 원양산업 통계연보 p.96~97, 한국원양산업협회, 2016

자료 3.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2017.03.07 검색)

그림 2. 원양어업의 주요 생산어종(2016년)



자료 :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2017.06.01.검색)

■ 1970년대 원양어선 최대 850척까지 증가시키며 해외 어장 개척

- 제동산업 지남호를 시작으로 원양어선이 증가하여, 1977년에는 최대 850척을 기록함
- 어선을 기반으로 대서양, 북태평양, 남태평양 등의 해외어장으로 조업 범위를 확대해 나갔으며, 2014년 말 기준 태평양 8개소, 대서양 12개소, 인도양 4개소 등 세계 23개국의 주요 항구에 24개 해외생산기지를 구축함

그림 3. 원양어선 척수 변화 추이



자료 : 2016 원양산업 통계연보 p.26~27, 한국원양산업협회, 2016

그림 4. 우리나라 원양어선 활동 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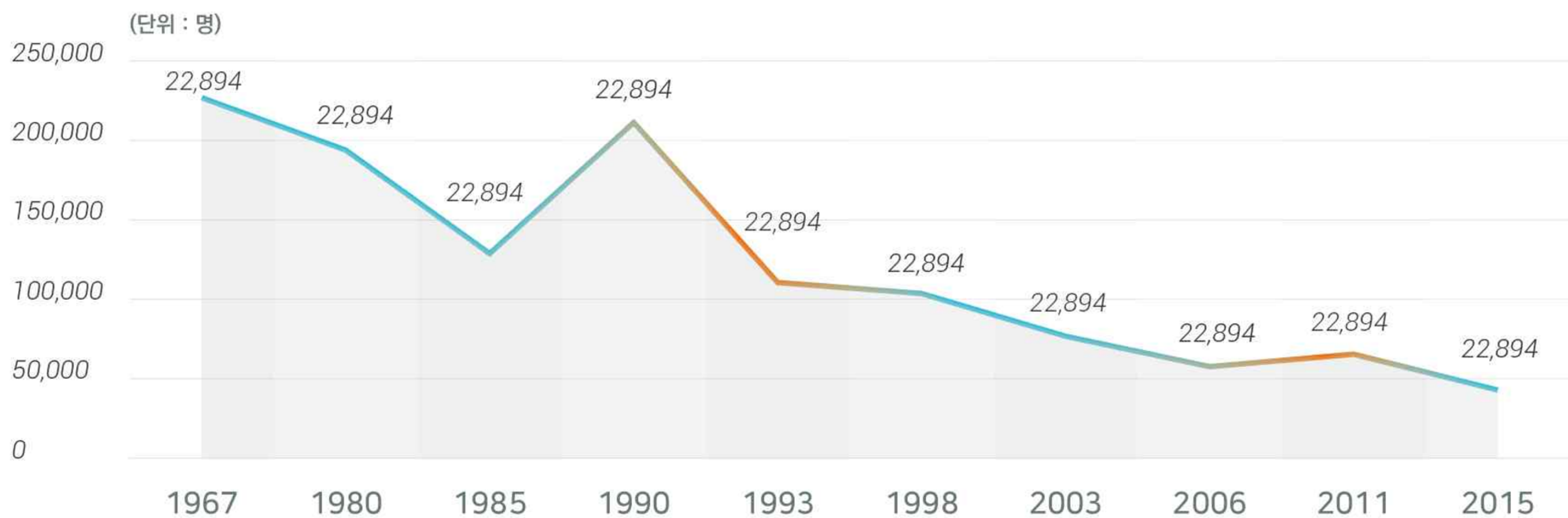
자료 : 2016 원양어업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p.18~19, 부산광역시, 2016을 참조하여 KMI 재구성

■ 한해 2만 명 태웠던 원양어선, 1970년대 일자리 창출 효자산업

- 1976년 원양어업 어선원은 22,894명이었으며, 어선원 이외 원양어업 관련 사업 종사자를 포함할 경우 수산업의 최대 일자리 창출 업종이었음

- 1970년대 중반 수산업 고용유발계수가 523명이었으며, 당시 전체 수산물 생산액 가운데 원양어업의 비중이 약 41%인 것을 감안하면 원양어업 생산액 10억 원당 약 214명의 고용효과가 있었음

그림 5. 원양어선원 변화 추이



자료 1. 원양어업 50년 발전사 p.490, p.550, 농림수산식품부, 2008

자료 2. 2016 원양산업 통계연보 p.70, p.92, 한국원양산업협회,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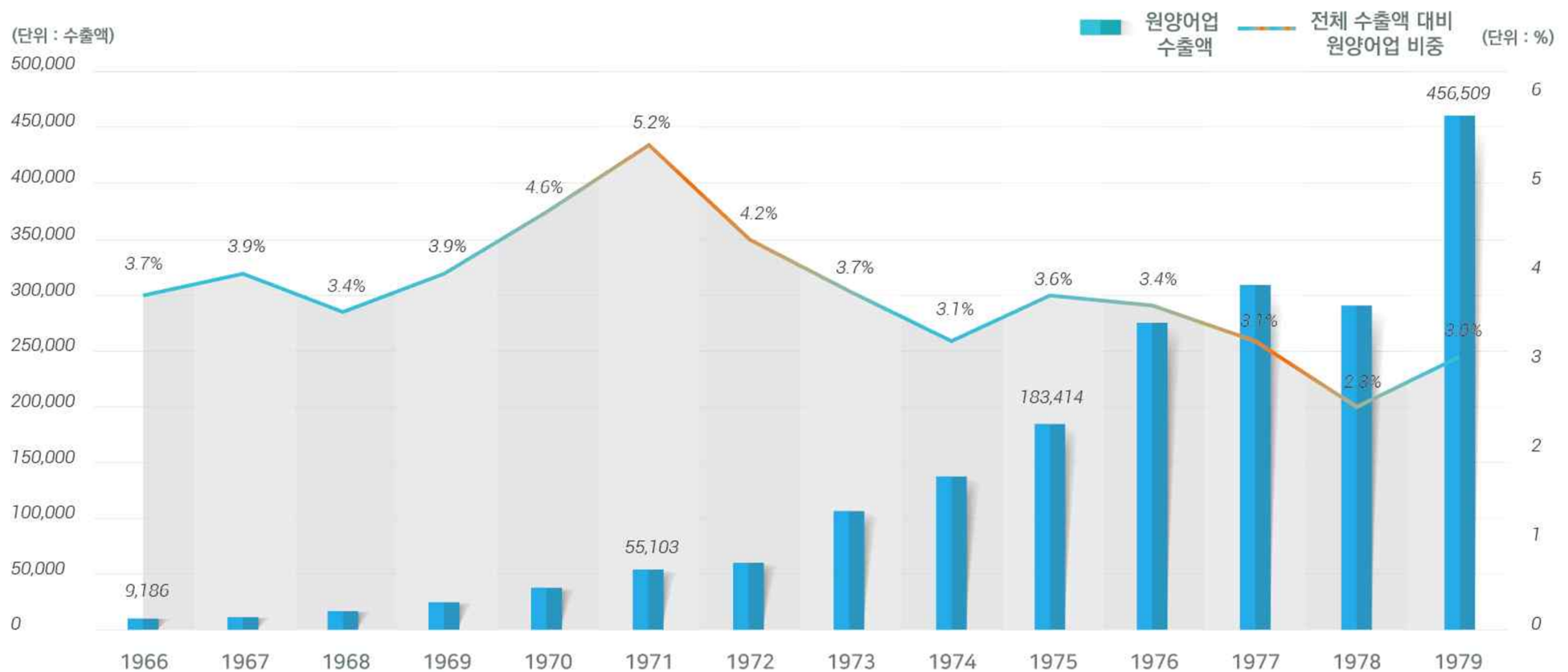
■ 1970년대 초 원양어업 수출, 오늘날 휴대폰 수출 비중과 유사

- 1960년대 후반부터 원양수산물의 수출이 점차 증가하여 1970년대 초 원양수산물 수출액은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5%를 상회함
-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3억 달러¹⁾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당시 전체 수출액 대비 원양어업 비중은 2016년 현재 우리나라 수출 효자품목인 휴대폰(6%), 철강제품(5.8%), 석유제품(5.3%), 자동차부품(5%) 등과 비슷한 수출 비중임²⁾

1) 1971년 원양어업 수출액 55,103 천 달러의 2016년 환산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로 잡았으며, 물가상승배수는 18.147배로 설정함 (한국은행, 화폐가치 계산 <http://ecos.bok.or.kr/jsp/use/monetaryvalue/MonetaryValue.jsp?lm=4>, 2017.05.29. 검색)

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6년 수출입 평가 및 2017년 전망" 이용하여 저자가 추정된 수치임

그림 6.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추이와 원양어업 비중



자료 : 2016 원양산업 통계연보 p.233, 한국원양산업협회, 2016

■ 1달러가 귀중했던 시대, 원양어업 총소득대비 외화가득액이 파독 광부(0.1%) 기여도보다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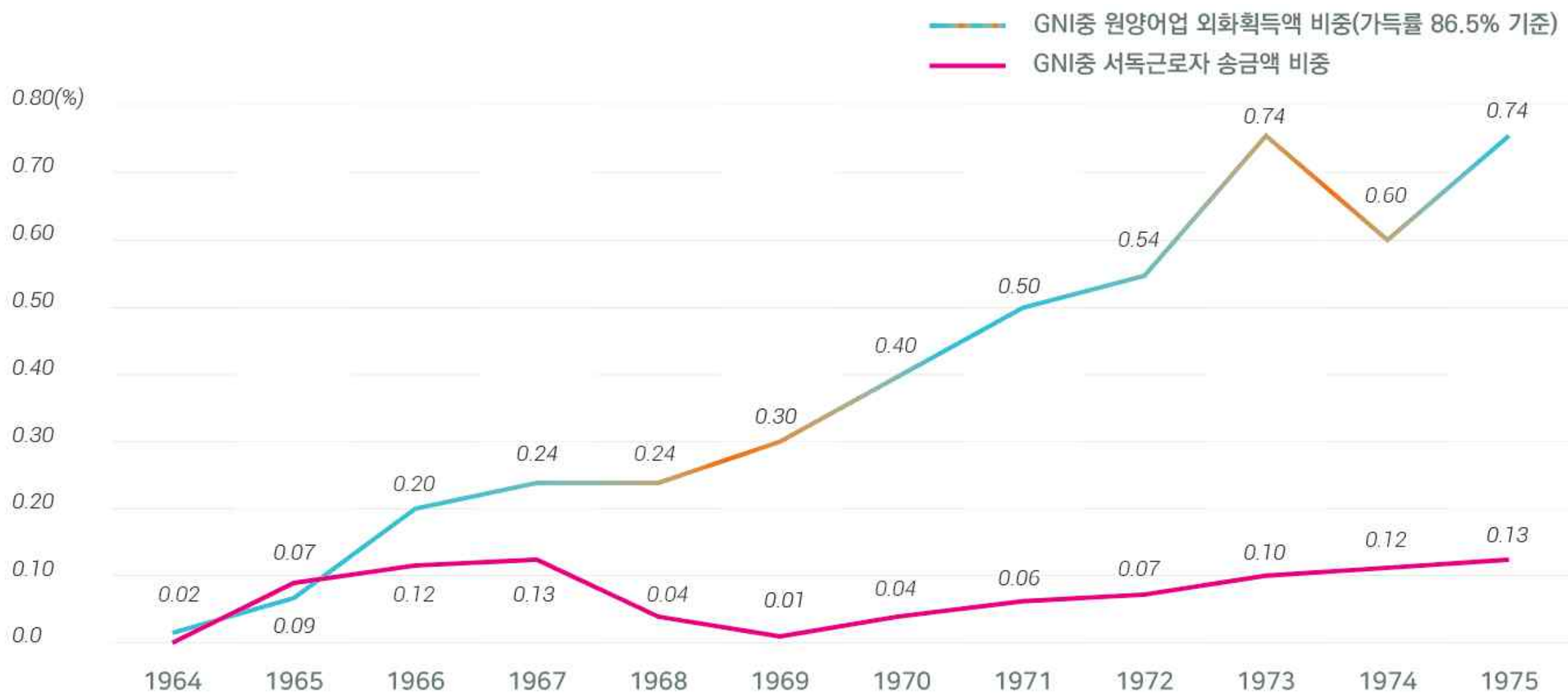
- 원양어업의 외화가득률을 100%로 가정할 경우, 명목 총국민소득(이하, GNI) 대비 외화가득액이 0.1% 이상이었던 시기는 1966~1995년임
- 입어로 지불 등으로 외화가득률이 하락한 점을 감안해 2005년 기준 농림수산물 외화가득률 86.5%³⁾를 적용하더라도 원양어업의 외화가득액은 1966~1991년 명목 GNI의 0.1% 이상을 기록함
- 한편 파독 근로자의 1960~70년대 송금액이 당시 우리나라의 각 연도 국민총생산(GNP)⁴⁾의 0.1%에 육박하거나 상회한 것을 두고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당시 1달러의 외화도 귀중했던 당시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 파독 근로자의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는 상당하다”⁵⁾라고 평가한 부분과 비교하면 원양어업의 경제적 기여는 훨씬 더 컸음

3) 이정실, 양일용, 박중환,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카지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관광·레저연구』(제23권 제1호(통권 제56호)), 2011, p.36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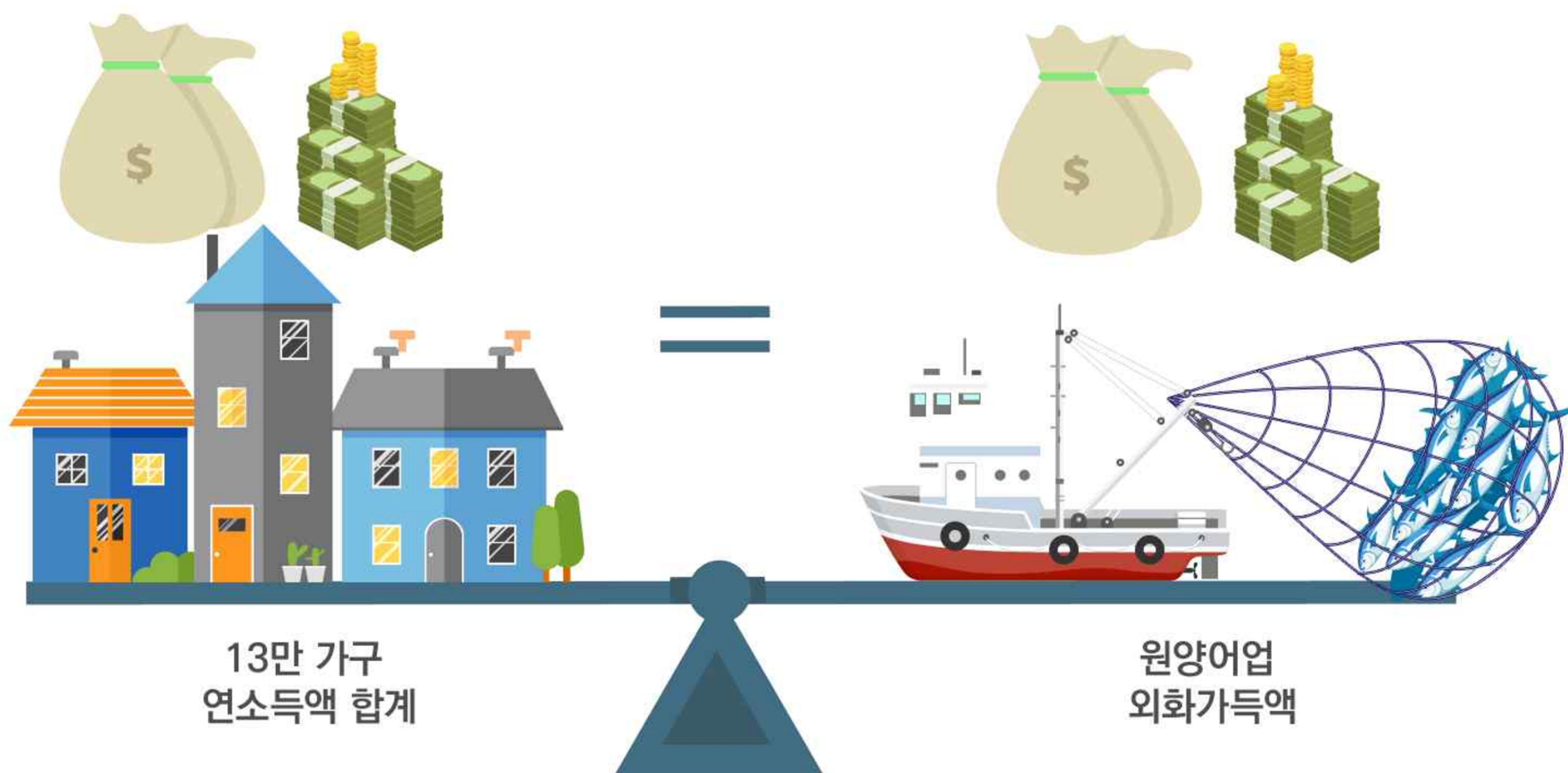
4) 2017년 5월 현재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서는 GDP 및 GNI 만을 제공하고 있어 원양산업의 기여도는 GNI를 활용하여 분석함

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파독 광부·간호사의 한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제1권), 214~215쪽

그림 7. 원양어업 외화가득액과 서독근로자의 송금액 비중 비교



- 1976년 원양어업의 최대 외화가득액은 약 2.6억 달러 즉, 한화 1,271억 원⁶⁾이었는데, 이는 당시 4인기준 근로자 가구당 연간 명목소득인 98만원⁷⁾의 13만 배, 즉 13만 가구의 총소득액과 맞먹는 수준이었음



6) 1976년 환율 484원/달러 기준임(기획재정부,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068, 2017.05.22. 검색)

7) 국가통계포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를 이용하여 저자 가공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C#SubCont, 2017.05.22. 검색)

■ 해외어장 확보하며 아프리카 국가 등과 경제협력, 선도적 민간 외교관 역할

- 도전의식과 해외어장을 개척한 국내 원양어업은 1990년대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 3대 원양강국에 올랐음
- 공식 외교채널이 성립되기 전에 아프리카, 남태평양 지역 국가와 어업협력을 체결하고 물자지원 등 경제협력을 추진하면서 민간 외교사업자로서 역할을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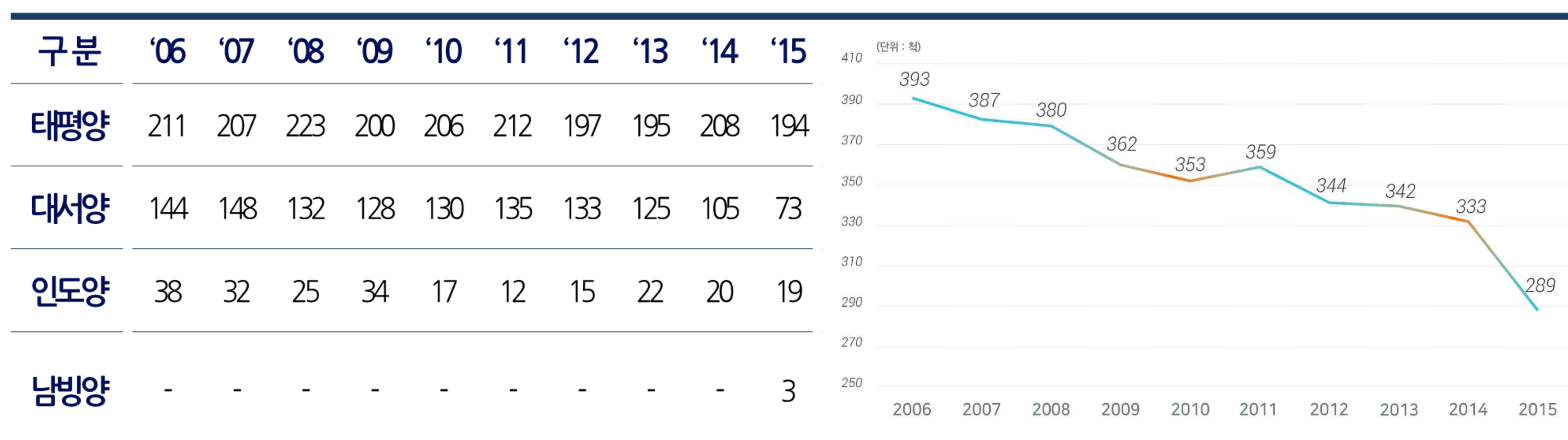
어선과 어선원은 늘어가고, 해외 어장은 좁아져

■ 원양어업 생산량은 1992년 최고 100만 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UN 해양법 발효와 주요 연안국을 중심으로 200해리까지 EEZ 선포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해외어장이 급격하게 축소됨. 이에 따라 원양어업 생산량이 1992년 100만 톤에서 2016년 45만 톤으로 줄어들었음. 전체 수산업 생산량에서 원양어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2년 32%에서 2016년 14%로 감소함
- 최근에는 국제사회 및 지역수산기구를 중심으로 공해 MPA⁸⁾ 논의가 확대되면서 향후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해외어장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표 2. 해역별 원양어선 출어 현황(2006~2015년)

(단위 : 척)



자료 : 한국원양산업협회(<http://www.kosfa.org/index.asp>)(2017.4.6.검색)

8)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

■ 경영난 악화로 영세 원양업체 수 2002년 대비 반토막

- 2015년 기준 전체 원양업체 수는 67개사로 2002년 131개사 대비 49% 감소함. 이 중 경영난 악화로 도산한 업체 수는 2002년 14개사로 최고를 기록함
- 부도 업체의 대다수가 선박 1척 이하를 보유한 영세 업체에 집중되었으나 2014년부터는 4척 이상 보유한 업체에서도 부도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표 3. 원양업체의 부도·도산 현황

연도별	부도업체(수)	보유척수				전체 업체(수)	부도 업체 비중(%)
		1척 이하	2척	3척	4척		
2002	14	10	4			131	11
2003	4	2	1	1		131	3
2004	10	8			2	121	8.3
2005	5	2	1	2		112	4.7
2006	4	4				112	3.8
2007	4	2	2			110	3.7
2008	5	3	1	1		106	4.7
2009	9	6	1	2		95	9.5
2010	9	7	2			90	10
2011	3	3				88	3.4
2012	7	6	1			79	8.8
2013	3	1	1	1		75	4
2014	2	1			1	75	2.6
2015	2	1			1	67	3

자료 : 2016 원양산업 통계연보 p.65, 한국원양산업협회, 2016

■ 원양어선원 고령화 심화, 2015년 기준 50세 이상 어선원이 59% 육박

- 2015년 기준 전체 원양 어선원 가운데 50세 이상 어선원이 59%에 육박하며, 이는 2007년(29.6%) 대비 약 2배 증가된 수준임
- 어선원의 고령화 심화에 따라 재해 및 안전사고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젊은 어선원 부족에 따른 산업의 활력 감소, 1세대 원양 어업인이 구축한 기술 및 노하우 전수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 또한 내국인 어선원의 원양어선 기피현상으로 2015년 기준 외국인 어선원 비중이 69%에 달함에 따라 고령 내국인 어선원과 외국인 어선원간의 갈등 해결도 원양산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임

표 4. 원양어선원 연령별 현황(2015년 말)

구분	25세 미만	25~30세	30~40세	40~50세	50~60세	60세 이상	합계
어선원 수(명)	87	37	39	452	673	204	1,492
비중(%)	5.8%	2.5%	2.6%	30.3%	45.1%	13.7%	100

자료 : 2016 원양산업 통계연보 p.76, 한국원양산업협회, 2016

표 5. 원양어선원 외국인 비중

구분	2001	2003	2006	2011	2015	연평균증감율
내국인(명)	5,099	3,460	2,296	2,053	1,492	-8.4%
외국인(명)	5,095	4,470	3,719	4,540	3,374	-2.9%
외국인 어선원 비중(%)	50%	56%	62%	69%	69%	

자료 1. 원양어업 50년 발전사 p.550, 농림수산식품부, 2008

자료 2. 2016 원양산업 통계연보 p.92, 한국원양산업협회,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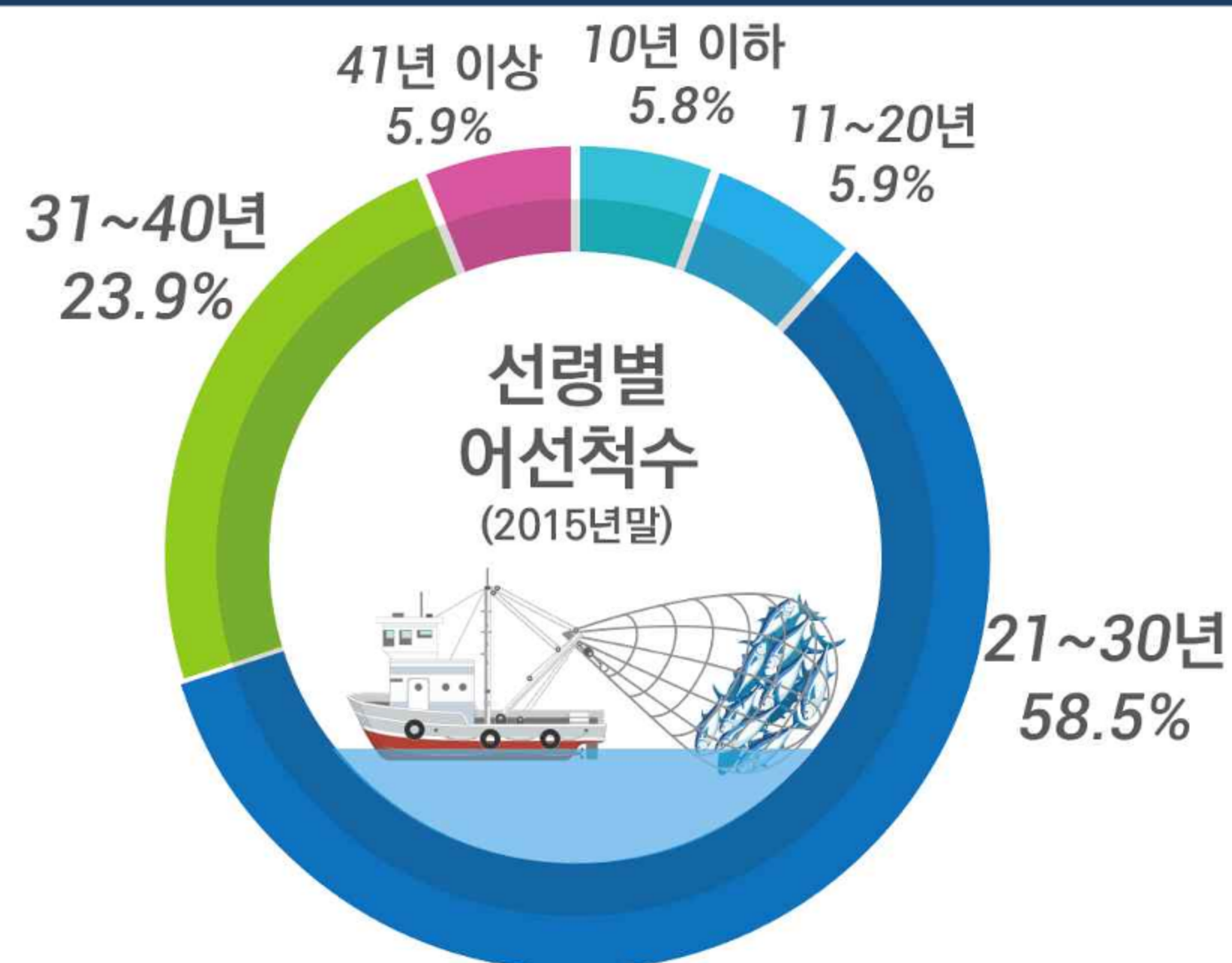
자료 3. KOSIS(<http://kosis.kr/>)(2017.4.6.검색)

■ 21년 이상된 노후어선이 88%로 조업 안전에 빨간불

- 원양어업 호황기였던 1988년에는 21년 이상 된 노후어선은 단 2척(1%)에 불과하였으나⁹⁾ 2015년 말 선령 21년 이상의 어선이 전체 어선의 88.2%를 차지하면서 노후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 원양어선 노후화는 업종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오징어채낚기의 경우 총 24척의 어선이 모두 21년 이상 된 노후어선이며, 31년 이상 된 어선도 10척(41.6%)이나 있음

표 6. 선령별 어선척수(2015년 말)

선령별 어선척수			
1~5년	6~10년	11~15년	16~20년
12척	5척	6척	11척
21~25년	26~30년	31~40년	41년이상
10척	159척	69척	17척



자료 1. 원양어업 50년 발전사 p.560, 농림수산식품부, 2008

자료 2. 2016 원양산업 통계연보 p.32, 한국원양산업협회,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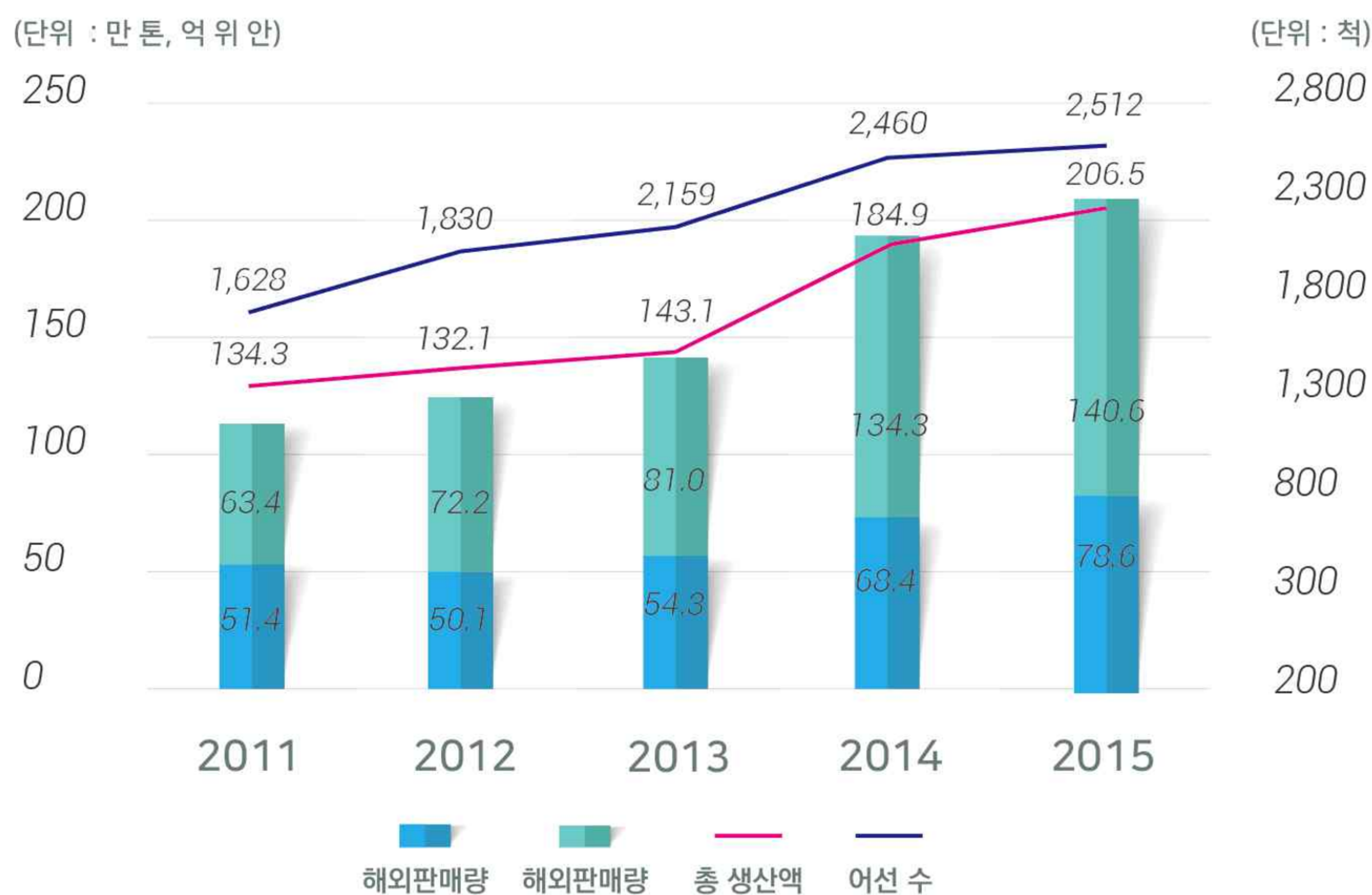
9)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어업 50년 발전사」, 2008, p.122

주요 원양국,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강화 추세

■ 중국, 원양어업을 중점 산업으로 선정하고 파격 지원 나서

- 중국의 원양어업은 정부의 수산업 중점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2015년 원양어업 총생산량은 219만 2천 톤이며, 총생산액 219억 2천만 위안(한화 약 3조 6천억 원), 원양어선 수는 2,512척임
- 중국은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에서 원양어업을 중점 산업으로 선정하고 원양어선 건조 보조, 디젤유 사용 보조, 세금 감면 등을 지원하였음. 이를 통해 1/3의 어선 개조 및 최초의 대형 다랑어 트롤망 어선과 신형 콩치어로 선박 건조, 냉장운송 구조 개선 등 원양 기술 장비의 수준을 높임
-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에는 원양수산물 거래센터 건설, 원양어업 관련 조선 기술 및 인재 양성, 원양산업 선도 기업 육성 등 다양한 발전 계획이 있으며, 연안국과의 수산 협력 및 활발한 교류 등 강화된 국제 협력 계획도 포함되어 있음¹⁰⁾

그림 8. 중국 원양어업 생산 현황(2011~2015년)



자료 : KMI 중국리포트 제16-18호

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KMI 중국리포트」(제16-18호), 2016

■ 일본, 어선어업 구조 개혁 사업으로 원양어업에 활력 불어넣고 미래형 어업으로 발돋움

- 일본 정부는 2007년 어선어업 구조 개혁 종합 대책사업 추진을 통해 노후 어선 교체, 수익성 향상을 위해 종합대책 강구, 국제경쟁력 있는 경영체 육성을 지향하고 있음. 원양어업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절약, 인력 절감화 등 개혁 어선이 수익성 실증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용선료를 3년 상한으로 조성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또한 어업경영 체질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원양어선이 어탐선과 운반선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그룹 조업을 하는 경우 사업비의 50%를 지원함
- 에너지절감 기술도입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원양 참치연승어선의 선형을 개선하여 유류비 절감을 도모하거나 선망 어획물을 선상 동결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부가가치 향상 등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국내 원양산업 활력 증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 위태로운 원양어업 존립 기반, 획기적 원양어선 신조 지원으로 강화나서야

- 우리나라는 지난 89년 계획조선사업 전면 중단 이후 신조가 이뤄지고 않고 있음. 이에 따른 원양어선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고, 원양어선의 안전사고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원양어업의 존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 활성화를 통해 원양어선 신조 지원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함
- 2015년 약 234억 원이 편성된 원양어선 현대화사업은 집행 실적 저조로 2017년에는 27억 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음. 현대화사업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침체기에 있는 원양업계가 3%의 금리와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신용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임
- 해당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중견원양어업과 중소원양어업으로 세분화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 금리 및 담보 조건 완화 등의 조건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함

■ ‘노동환경 개선’으로 일하고 싶은 원양어업으로 탈바꿈해야

- 원양어선의 내국인 선원 수급난의 원인은 업무의 위험성,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수준, 해양사고 등에 따른 높은 재해 가능성, 실직이나 질병 또는 부상시 보상 대책의 현실성 결여, 선원 고용 및 모집 방법의 낙후성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어선원이 인기 직종에서 밀려남으로써 선원 이직률 증가와 재승선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기존 선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어업 노동 조건 및 환경 개선, 선원 직업 전문화 등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 또한 내국인 선원 수급난 원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인력 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산관학 협동으로 관련 대학의 예비 졸업자 및 희망 구직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선 일자리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적극적인 홍보 정책을 수립·실시해야 함

■ 대국민 수산물 단백질 공급 안정화 위해 연안국과 국제개발협력 절실

- 원양어업의 주요 어획 어종은 가다랑어, 오징어, 명태, 꽁치이며, 이 중 국민 생선인 명태, 꽁치, 오징어 공급에서 원양어업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임. 대국민 수산물 단백질 공급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원양어업의 해외 어장 확보는 필수이나 연안국의 지속적인 입어로 인상과 입어와 연계한 경제협력을 요청하고 있어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해외 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ODA¹¹⁾ 등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연안 자원국 지원을 강화해야 함
-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수산분야의 ODA 예산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사업 내용도 기존 수원국에 대한 물자 지원 사업에서 수산 인프라 개선, 수산양식, 수산자원 관리 등 중장기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전환이 요구됨. 협력 대상은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진출해있어 조업권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솔로몬, 키리바시 등 태평양 도서국과 중점 협력을 추진하고 자원 개발 가능성이 높은 중남미, 인도양 연안국과의 협력 사업도 확대·추진해야 함
- 이와 같은 연안국 대상의 국제개발협력 강화는 2015년 9월 UN이 채택한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SDGs) 중 하나인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Goal 14.6) 달성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중소원양기업 규모화 위한 원양어선 풀(pool) 체제 운영 적극 고려해야

- 현재 원양 기업체는 일부 대형 선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1~5척의 어선과 5억 원 이하의 자본금을 가진 중소 원양기업임. 이들 중소 원양기업은 오징어, 꽁치, 명태 등 특정 어종 생산에 특화되어 있어 안정적 기업 운영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소원양기업은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조직화 및 규모화된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원양어선 풀(pool) 결성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임. 어선 풀 체제란 동일 해역, 동일 어종을 생산하는 원양 어선들이 결성되어 대표 선주에게 생산을 일임하고 운영 수익을 합의된 조건으로 배분하는 방식임.

11) 공적 개발 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어선 풀 체제 운영은 업체 간 중복 비용 감소를 통한 경영 효율화, 규모화를 통한 연안국과의 가격 협상력 제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의 이점이 있음. 또한 절감된 비용으로 원양 수산물의 마케팅, 시설 등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발전 체계도 구축시킬 수 있음

- 어선 풀 운영이 업체 간 영업 노하우 노출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있지만 원양어업 제2의 도약이라는 관점에서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어선 풀 결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행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TEU 이상 줄어듦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업·수산물,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8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5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대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싹쓸이 채취하는 소위 국민이 수산자원을 파괴하고 있다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알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침범!..로보틱스·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URL : <http://www.kmi.re.kr/>